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宮沢賢治에 있어서의 <데크노보어> 고찰

- 『虔十公園林』과 『グスコブドリの伝記』를 中心으로 -

2007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學科

崔 銀 汀

文學碩士 學位論文

宮沢賢治에 있어서의 <데크노보어> 고찰

- 『虔十公園林』과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崔 蓮 姬

이 論文을 文学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崔 銀 汀

崔銀汀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7年 2月



主 審 尹 一 (印)

委 員 崔 蓮 姬 (印)

委 員 金 祥 圭 (印)

目 次

*Abstract	ii
I. 序論	1
II. 本論	11
1. 「雨ニモマケズ」에서의 <데크노ボー>	11
2. 『虔十公園林』	16
2-1. 作品의 成立과 背景	16
2-2. 作品속에 나타난 人間像	18
2-3. <데크노ボー>의 가치실현	30
3. 『グスコブドリの伝記』	32
3-1. 作品의 成立과 背景	32
3-2. 作品 속에 나타난 人間像	33
3-3. <데크노ボー>의 가치실현	43
4. 타 작품에서 보이는 人間像	46
III. 結論	59
*参考文献	63

Discussion of <Dekunobou> in Kenji Miyazawa

–Focused on 『kenzuukouenrin』 and 『gusuko-budorinodenki』 –

Choi Eun Jung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enji Miyazawa (1896~1933), Japanese best loved author of children's literature and poet, was born in Hanamaki city, Iwate. The meaning of the <Dekunobou> what is the ideal human being which was written on his works was focused on 「Amenimomakezu」. His desiring happiness is that the sacrifice through living plainly, voluntary and devotion, even though people think these are stupid thing. These kind of attitudes were described from Kenzu who is unselfish man in 『Kenzuukouenrin』 and considered self-sacrificing spirit with strong willpower of "Budori" in Gusuko-Budorinodenki. He tried to seek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life through Kenzu. It corresponded with the phrase "simple, rarely getting angry and always smiley" in 「Amenimomakezu」. <Dekunobou> what is like Being disinterested in a Japan cedar's growth and smiling quietly instead of being angry when people are bothering you, these factors could be found. It ,also, shows the belief and will by Kenzu who acts up to his opinion in defiance of insult and force of people. Budori's life is active and looks similar to Kenzu's life but Budori has more clear and stronger

will about " how should I do" and how could I be " in his life. It makes difference between Budori and Kenzu. He is worrying about people except his well-being in cold-summer like " Worrying in Cold-Summer" of 「Amenimomakezu」 in 『Gusuko-Budorinodenki』. He never looks out from his own interests. He also sacrifices for everyone's happiness without any purposes. The propriety is checked by studying and comparing the other each works 『Kinoikazandan』, 『Nekonozumuso』 and 『Yodakanohoshi』 which are known as the <Dekunobou>. Treating these works as the meaning of the word <Dekunobou> is reasonable but as the belief and strong will of the <Dekunobou>. By all accounts of the works, there is a period problem. It might be different among the works before or after the 「Amenimomakezu」. 『Kinoikazandan』 (1921), 『Yodakanohoshi』 (1921) and 『Kenzukouenrin』 are the works before 「Amenimomakezu」. He wrote about <Dekunobou> through the hero by corresponding with the phrase of poetry instead of focusing on overall definition. On the other hand, 『Gusuko-Budorinodenki』 (1932), a year after writing the 「Amenimomakezu」, is corresponding with the phrase of poetry and with the topic which is that having sacrificing spirit for other people without any purposes but belief and strong will. 『Gusuko-Budorinodenki』, one of the works of Kenji, can be discussed as the work related to <Dekunobou> more than studying about the viewpoint of writer and the research for sacrificing spirit. So, Kenji always thinks <Dekunobou> in his mind. He pursues the <Dekunobou> ultimate and wrote the 「Amenimomakezu」 with it. It was established firmly the position as the ideal life of Kenji with the strong will from the phrase " I want to be the person who is called stupid, being live at ease without honor.

I. 序論

大正시대의 宮沢賢治(1896~1933, 이하 켄지라 함)는 근대 일본의 환상적인 동화작가이자 시인이었으며, 岩手県 花巻에서 태어났다. 모리오카 고등농림학교(盛岡高等農林学校) 재학 중 불교의 일련종(日蓮宗) 신앙을 갖게 된다. 졸업 후 동경에 가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으나, 여동생 토시코의 병으로 귀향하여 히에누키농학교(稗貫農学校)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詩와 童話を 썼다. 1924년 詩集『春と修羅』와 童話集『注文の多い料理店』을 자비로 각각 출판하게 되었지만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사후에 그의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비록 37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동화작가, 시인, 교육자, 과학자, 농촌운동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켄지는 詩集『春と修羅』의 序詩¹⁾에서 「ここまでもちつゞけられた/かげとひかりのひとくさりつづ/そのとほりの心象スケッチです。」라고 자신의 詩와 童話を 스스로 심상스케치(心象スケッチ)라 부르며, 문학을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었다. 켄지의 삶과 문학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 池上雄三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

賢治が好んで出た野原で、いろんな感覚を刺激するものと出会っただろう。
そして「その時の気持ち、そのとき感じたものをすぐ野原に書いた」というから、
その場でさっと書きつける練習を積んでいたらしい。

1) 宮沢賢治『新修宮沢賢治全集 第二巻』(筑摩書房, 1983.9) 5-9쪽

2) 池上雄三『宮沢賢治 心象スケッチを読む』(雄山閣, 1992.7) 3쪽

池上가 지적인 대로 켄지의 작품들은 그가 좋아하던 들에서 생각이 나는 그대로 표현한 작품으로 생각되어 지며, 모든 사상과 감정들이 작품 속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다시 말해서, 자연은 켄지의 心象을 펼쳐나가는 장소였으며 자연과 더불어 理想郷에 대한 염원이 자신의 작품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과 켄지 자신이 함께 동화되고 거기에서 얻어진 心象으로 그려낸 100여 편에 이르는 동화들은 대체로 밝고 교훈적이며 긍정적인 입장을 그리고 있으며, 어린이에서 어른에게 이르기 까지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한대로 그의 작품들은 그 시대에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大正시대에 평판이 높았던 童心主義³⁾를 기초로 했던 童話童謡誌 『赤い鳥』에 켄지는 처음으로 寄稿하였지만 거절당하게 된다. 보수적이었던 그 당시의 문학들과는 다르게 「心象スケッチ」라는 켄지 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쓰여 진 그의 문학세계는 그 당시의 아동문학들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작품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당시 비평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 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戦後에 세계의 아동 문학 중에 일본의 아동문학은 독특하고 異質적인 작품이라고 알려진 『子どもと文学』라는 잡지에서 켄지의 동화를 높게 평가하게 되고 일본에는 보기 드문 환타지의 세계를 가진 독특한 문학이라고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된다.⁴⁾ 켄지의 동화는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

3) 恩田逸夫 『宮沢賢治3 童話研究・他』(東京書籍, 1981.10)에 의하면 『赤い鳥』의 童心主義는 아동의 심적 특성을 소박하고 진실로 바라보며 그것을 최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현실에 맞춘 것이 아닌 성인의 입장에서부터 동심을 미화시켰다.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도회적 예술지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켄지 동화의 특성이 郷土性이라고 해도, 『赤い鳥』 동화와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 19쪽 참조

4) 大藤幹夫・萬田務編 「賢治童話の魅力とその世界」 『宮沢賢治 童話への招待-作品と材料-』(桜楓社, 1995.10) 204-205쪽

운 일반적인 동화가 아닌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심상스케치(心象スケッチ)로 표현하였다. 동화라고 해서 반드시 동화의 형식을 빌려야 한다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작품을 썼던 것이다. 켄지의 사후에 草野心平(쿠사노 심페이)⁵⁾등에 의해서 작품연구와 그 문학세계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문학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켄지의 동화를 이하토브⁶⁾동화라고 부르는데, 동화『注文の多い料理店』의 広告文⁷⁾에서 다음과 같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イーハトヴは一つの地名である。強て、その地点を求むるならばそれは、大小
ママ
 クラウスたちの耕してゐた、野原や、少女アリスが辿つた鏡の国と同じ世界の
 中、テバーンताल砂漠の遙かな北東、イヴン王国の遠い東と考へられる。
 実にこれは著者の心象中にこの様な状景をもつて実在したドリームランドとしての
 日本岩手県である。そこでは、あらゆる事が可能である。(中略)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켄지 문학과 그가 태어나 자란 이와테현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켄지의 이와테현에 대한 애정은 그의 문학작품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하토브란, 心象에서 추구한 드림랜드로서 켄지가 평생 추구해온 理想郷이었다

동화집『注文の多い料理店』의 序文⁸⁾에서도 이하토브의 사상이 잘 나타나

5) 草野心平(1903~1988)는 詩人이며 福岡県 출신이다. <銅鑼>의 중심인물 이었으며, 宮沢賢治와 八木重吉등에게 同人이 될 것을 권유했으며,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앞장섰다. 다수의 詩集과 童話集, 評論集 이외에 高村光太郎와 賢治의 소개자로서 공헌이 크다. 주요 작품 활동으로 詩集『母岩』(1936년)와 『蛙』(1938년)등이 있다.

稲賀敬二・竹盛天雄・森野繁夫『新訂総合国語便覧』(第一学習社, 1998.1) 274쪽 참조

6) 原子朗『宮沢賢治語彙辞典』(東京書籍, 1989.10)에 의하면 켄지가 에스페란토어로 만든 지명으로써, 이와테현을 말한다. 58쪽 참조

7) 宮沢賢治『新修宮沢賢治全集 第十三巻』(筑摩書房, 1984.6) 402-404쪽

있다.

わたしたちは、氷砂糖をほしくらいもたないでも、きれいにすきとおった風をたべ、桃いろのうつくしい朝の日光をのむことができます。

またわたくしは、はたけや森の中で、ひどいぼろぼろのきものが、いちばんすばらしいびろうどや羅紗や、宝石いりのきものに、かわっているのをたびたび見ました。

ママ
わたくしは、そういうきれいなたべものやきものをすきです。(中略)

ですから、これらのなかには、あなたのためになるところもあるでしょうし、ただそれっきりのところもあるでしょうが、わたくしには、そのみわけがよくつきません。なんのことだか、わけのわからないところもあるでしょうが、そんなところは、わたくしにもまた、わけがわからないのです。けれども、わたくしは、これらのちいさなものがたりの幾きれかが、おしまい、あなたのすきとおったほんとうのたべものになることを、どんなにねがうかわかりません。

위의 序文은 켄지가 생전 유일하게 보여준 동화창작을 위한 실마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인용문이지만 그 내용을 금방 이해하기는 어렵다. 「氷砂糖をほしくらいもたないでも、きれいにすきとおった風をたべ、桃いろのうつくしい朝の日光をのむことができます。」에서 보여 지듯이, 氷砂糖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풍족함을 가지지 못해도 자연과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켄지가 말하는 이하토브의 세계를 자신이 직접 느끼지 않으면 독자들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의 동화는 자연그대로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작품 속에 理想郷으로 표출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정작 동화를 쓴 켄지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단순한 개념은 아닌 듯 하다.

8) 注7에 5-6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켄지는 이하토브를 드림랜드로서 작품 속에 理想郷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살았던 이와테현(岩手県)은 열악한 자연환경과 기근이나 냉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켄지는 그들을 빈곤에서 구하고자 직접 라스지인협회(羅須地人協會)⁹⁾를 설립하였다. 농촌문제와 농사에 직접적으로 힘을 기울이면서 농촌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향토에 대한 애정이 童話나 詩로 표현되었고, 유토피아인 이하토브를 만들기 위해 <デクノボー>를 낳게 된다. <デクノボー>라는 것은 켄지가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한 理想的인 존재의 모습 즉, 理想的인 人間像을 나타낸다. 그 의미로서는 인형이나 쓸모없는 우둔한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얼간이, 바보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하토브라는 理想郷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켄지에게 있어서 <デクノボー>야 말로 理想的인 人間像이라 할 수 있겠다.

<デクノボー>는 詩「雨ニモマケズ」¹⁰⁾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雨ニモマケズ
 風ニモマケズ
 雪ニモ夏ノ暑サニモマケヌ
 丈夫ナカラダヲモチ
 慾ハナク
 決シテ瞋ラズ
 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ヰル

9) 天沢退二郎・萩原昌好『宮沢賢治 イハトーブローマン』(くもん出版, 1996.7)에 의하면 大正 15년(1926년) 賢治 29세때 농민의 삶을 알고 싶어 농학교를 퇴직하고 스스로 농촌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가 있었다. 비료 설계와 농업과학 연구 등, 농사 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76쪽 참조

10) 宮沢賢治『新修宮沢賢治全集 第七卷』(筑摩書房, 1983.23) 198-200쪽
 본문 중 밑줄은 논자에 의함.

一日ニ玄米四合ト
味噌ト少シノ野菜ヲタベ
アラユルコトヲ
ジブンヲカンジョウニ入レズニ
ヨクミキシワカリ
ソシテワスレズ
野原ノ松ノ林ノ蔭ノ
小サナ萱ヅキノ小屋ニキテ
東ニ病氣ノコドモアレバ
行ッテ看病シテヤリ
西ニツカレタ母アレバ
行ッテソノ稲ノ束ヲ負ヒ
南ニ死ニサウナ人アレバ
行ッテコハガラナクテモイ、トイヒ
北ニケンクワヤソショウガアレバ
ツマラナイカラヤメロトイヒ
ヒドリノトキハナミダヲナガシ
サムサノナツハオロオロアルキ
ミンナニ<デクノボー>トヨバレ
ホメラレモセズ
クニモサレズ
サウイフモノニ
ワタシハナリタイ

「雨ニモマケズ」는 켄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理想郷과 그에 따른 理想的인 人間像에 대해 보여주는 대표적인 詩다. 1931년 병상에 누워있을 때 쓴 晩年의 작품으로 그의 <デクノボー>에 관해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 詩로 보

여 진다.

<デクノボー>라 함은 인형이나 쓸모없는 우둔한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얼간이, 바보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어리석게 느껴질 만큼 착하고 순진하여 언제나 남들에게는 비웃음을 당하는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되어 지더라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로서 선을 행하는 깊은 마음이 있는 그런 존재이다.¹¹⁾ 켄지에게 있어서는 <デクノボー>야 말로 理想的인 人間像이라 할 수 있겠다. 이 詩가 적혀있는 수첩이 그의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되고 나서부터, <デクノボー>에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¹²⁾ 켄지는 <デクノボー>를 「雨ニモマケズ」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 詩가 발견된 후부터 <デクノボー>에 대하여 논해져 왔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デクノボー>를 논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雨ニモマケズ」에서 보여 지는 <デクノボー>는 누가 뭐래도 소신을 가지고 꿋꿋이 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デクノボー>에 관한 작품으로는 「雨ニモマケズ」뿐만 아니라 童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로는 『度十公園林』과 『気のいい火山弾』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池川敬可는 『度十公園林』을 「この作品は、賢治の希求した<デクノボー>を描く作品系列の一つである。」라고 말하면서 삼나무 숲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기쁘게 했으며, 어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준 度十을 칭찬하는 伝記의 作品이라고

11) 原子朗 『宮沢賢治語彙辞典』(東京書籍, 1989.10) 474쪽 참조

12) 注9의 天沢退二郎・萩原昌好 『宮沢賢治 イハトーブローマン』(くもん出版, 1996.7)에 의하면 草野心平, 宮沢清六 高村光太郎등이 중심을 이루어 20명 정도의 회원이 宮沢賢治를 추도하기 위해 「モナミ」라는 모임을 만들어 개최하였다.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켄지의 여행용 가방에서 수첩을 발견해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詩「雨ニモマケズ」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고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77쪽 참조

생각해도 좋다고 언급했다.¹³⁾ 또, 秋枝美保는 이 두 작품을 「度十と比較されることが多いベゴ石であるが、そのキャラクターには異なるところも多い。」라고 하면서 度十의 無垢함과 천진난만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지만, 베고石는 상식을 가진 현명함을 가진 인상이 강하다 라고 하며 두 주인공을 비교하고 있다.¹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デクノボー>에 관련된 작품으로 대표적이며 위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デクノボー>라는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주인공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하지만 本稿에서는 <デクノボー>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던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의 연구로서는 지금까지 <デクノボー>를 중심으로 언급한 연구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土佐 亨¹⁵⁾는 自己殺身の 공양의 표상이 보여 지며 거기서 범화경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大塚常樹¹⁶⁾는 종교와 과학이 일치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켄지의 이상이 증명된 작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작가의 삶과 직접적으로 결부시켜 작가론적인 연구나, 法華經이나 불교적인 사상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度十公園林』의 주인공 度十와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의 주인공 ブドリ가 理想郷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 실천과 방식은 적극적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13) 池川敬可 「度十公園林」(『國文學 解析と教材の研究』第48卷3号, 學燈社, 2003.2) 75쪽 참조

14) 秋枝美保 「気のいい火山弾」(『國文學 解析と教材の研究』第48卷3号, 學燈社, 2003.2) 57쪽 참조

15) 伊藤真一郎・万田 務 編, 土佐 亨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 私見」 『作品論 宮沢賢治』(双文出版社, 1984.7) 215-237 참조

16) 大塚常樹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國文學 解釈と教材の研究』第48卷3号, 學燈社, 2003.2) 64-65 참조

모습에서 켄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デクノボー>像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度十의 경우,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デクノボー>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인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ブドリの 경우를 살펴보면 자기만의 뚜렷하고 확실한 생각을 가진 의지의 인물로 그려져 있어 <デクノボー>라는 단어와는 정 반대의 의미인 인물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논자는 꼭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像만을 <デクノボ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度十의 삶은 남들에게 항상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소외되고 놀림감이 되지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밝게 웃으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을 위해 가치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度十에게 보여 지는 人間像은 「雨ニモマケズ」의 「慾ハナク決シテ瞋ラズ/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キル」라는 부분과 일치한다. 또 누가 뭐래도 소신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나무를 키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ブドリ는 더 이상의 냉해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결심하게 된다. ブドリ 역시 「雨ニモマケズ」의 「東ニ病氣ノコドモアレバ/行ッテ看病シテヤリ/西ニツカレタ母アレバ/行ッテソノ稲ノ束ヲ負ヒ/南ニ死ニサウナ人アレバ/行ッテコハガラナクテモイ、ト化/北ニケンクワヤソショウガアレバ/ツマラナイカラヤメト化」의 칭찬을 받지 않아도 좋고, 자신의 대가를 위해 행해지는 일이 아닌 人間像이 보여 진다. 이처럼 度十처럼 바보스러운 모습만이 <デクノボー>를 말하는 것이 아닌, ブド리의 경우도 켄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理想的인 인물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ブド리의 삶 속에서도 <デクノボー>의 삶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度十公園林』과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의 주인공들은 理想郷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보여 진다. 그러나 理想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과 목적은 주인공에 따라 조금씩 다른 <デクノボー>가 보여 지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雨ニモマケズ」가 쓰여진 시기를 중점으로 <デクノボー>가 작품 속에서 표현될 때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타 작품 『気のいい火山弾』, 『猫の事務所』, 『よだかの星』의 세 작품을 <デクノボー>의 작품으로 선행연구에서 논해져 왔는데 그 선행연구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本論

1. 「雨ニモマケズ」에서의 <デクノボー>

「雨ニモマケズ」는 켄지의 사후, 여행용 가방안의 포켓에서 우연히 발견된 「雨ニモマケズ」라고 쓴 수첩에 51~60쪽에 걸쳐 실려 있는 시이다. 시의 윗부분에 1931년 11월3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수첩과 함께 부모님과 형제에게 보내는 2통의 유서도 함께 발견되었다. 그 유서에 적힌 9월21일은 켄지가 죽은 1933년 9월 21일이 아닌 2년 전인 1931년의 9월21일이다. 그 유서의 종이에 「東京神田駿河台南甲賀町十二番地、旅館八幡館」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1931년 9월 19일에 동경으로 상경했을 때 旅館八幡館에서 폐렴이 재발하게 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유서를 쓴 것으로 보여진다.

「雨ニモマケズ」는 유서를 쓴 후, 귀향하여 투병생활을 보낼 때 켄지의 심경을 기록한 것으로, 1931년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쓰여진 켄지 晩年の 종교적 경지, 특히 법화경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하나마키(花巻)의 라스지인협회(羅須地人協會)가 있던 곳에 세워진 최초의 켄지의 기념비에는 高村光太郎의 필체로 「野原ノ松ノ森ノ蔭ノ」라는 이 시 후반부 句節이 새겨져 있다.

1963년 谷川徴三과 中村稔을 중심으로 <雨ニモマケズ>의 논쟁이 일어났다. 일찍이 켄지의 시를 주목해 세상에 널리 소개한 사람은 谷川徴三인데, 그는 1934년 東京女子大学の 강연 「今日の心がまへ」에서 「雨ニモマケズ」를 문제로 삼아 「この詩を私は、明治以後の日本人の作つたあらゆる詩の中で、最

高の詩であると思つてゐます。もつと美しい詩、或はもつと深い詩といふものはあ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その情神の高さに於て、これに比べて得る詩を私は知らないのです。」라고 「雨ニモマケズ」를 칭찬하였다. <雨ニモマケズ>논쟁의 계기가 된 것은 中村稔이 「宮沢賢治のあらゆる著者の中でもっとも、とるにならぬ作品のひとつであろうと思われる」라고 평가함에 따라서 시작되었다. 그는 「雨ニモマケズ」는 라스지인협회로부터의 완전한 退去이며, 『農民芸術論』의 이상주의에 대한 완전한 패배라고 논하였다. 이에 谷川徴三은 中村稔의 논을 하나의 사상적 고정점으로부터 분리된 견해라 비판하고 <デクノボー>의 理想을 라스지인협회의 농민운동의 좌절에 의한 심경적인 변화가 아닌, 초기 동화로부터 이미 간파되어진 켄지의 본질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晩年の 「雨ニモマケズ」는 그의 생활과 정신의 근원이며, 그 존재 의식의 확립이라고 설명했다. 또 「雨ニモマケズ」를 패배의 詩라고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것은 켄지의 전체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해서라고 반론하였다.¹⁷⁾

이처럼 이 두 사람의 논쟁은 표현의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론과 내용의 사상성을 중심으로 한 작가론의 입장차이로 생각되어 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雨ニモマケズ」는 켄지가 투병생활을 보낼 때 쓰여진 작품으로 작자의 晩年の 心境을 엿볼 수 있으며, <デクノボー>라는 사상을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作品이기도 한다. 그가 병상에 눕게 됨에 따라 라스지인협회는 점점 좌절되고 없어지게 된다. 이에 分銅惇作은 「病床にあった賢治が、まず雨にも風にも負けない丈夫ナカラダをもつことを願ったのは発想として当然のことである。」¹⁸⁾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켄지가 갖고 있던 理想郷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좌절된 것은 아니었다. 홍은예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는 데쿠노보라는 용어로 강하게 집약되어 비애와

17) 分銅惇作 「雨ニモマケズ-信仰の視座から-」(『国文学 解析と感賞』第60卷9号, 至文堂, 1995.9) 137-138쪽 참조

18) 注17의 139쪽

고뇌를 극복하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¹⁹⁾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켄지는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서 理想的 人間像을 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デクノボー>를 불교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종교성에 대하여 分銅惇作은 수첩에 적힌 다른 記述과도 연관해서 <デクノボー>의 이미지가 法華經의 不輕菩薩의 信行이 반영되어 있다²⁰⁾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佐藤泰正 역시 詩의 詩句는 詩人 본래의 가장 깊은 宗教的인 願望을 말하고 있다²¹⁾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デクノボー>가 불교적인 영향에서 생겨났다고 보여 지나, 「雨ニモマケズ」라는 작품을 가지고 <デクノボー>에 대해 이해한 후 그 영역을 童話와 연관 지어 해석해 보고자 한다.

「雨ニモマケズ」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건강한 몸을 가지며 욕심을 내지 않고 언제나 소박한 삶을 살며, 대가를 얻기 위함이 아닌 모든 이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행하는 犧牲정신이 보여 진다. 비록 그러한 모습이 남들에게는 바보, 멍청이로 불리지만 결코 화내지 않고 조용히 웃는 그러한 人間像이야 말로 켄지가 바라던 理想的인 삶, 理想的인 人間像이며 값지고 참된 행복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삶을 소신껏 곳곳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마지막에 「ホメラレモセズ/クニモサレズ/サウイフモノニ/ワタシハナリタイ」라는 강한 의지와 켄지만의 理想的인 삶의 모습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켄지의 晩年에 쓰여 진 詩이며, 작자의 모든 心境의 하

19) 홍은예 「미야자와 켄지(宮沢賢治)의 동화 고찰-동화를 통해서 본 데쿠노보오(デクノボー: 바보)사상을 중심으로-」 (『일본근대문학산책』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일본근대문학회, 1996.12) 78쪽

20) 分銅惇作 「雨ニモマケズ」 (『國文學 解析と教材の研究』 第34卷14号, 学灯社, 1989.12) 122쪽 참조

21) 佐藤泰正 「賢治素描 「雨ニモマケズ」 再論」 (『別冊国文学NO6宮沢賢治必携』 學燈社, 1980.5) 812쪽 참조

나하나가 담겨진 작품이기 때문에 善한 삶도 <デクノボー>가 될 수 있고, 소박한 삶 또한 <デクノボー>가 될 수 있어 詩의 句節로서 표현한 바와 같이 하나하나의 삶을 통틀어서 <デクノボー>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雨ニモマケズ」를 가지고 詩의 각 句節이 의미하는 것이 童話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나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デクノボー>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賢治의 작품 속에서 그의 理想郷을 위한 현실추구와 그에 따른 理想的인 人間像이 나타나는 작품들이 몇 있다. 序論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와 관련된 작품들이 많은데 우선 『祭の晩』²²⁾을 예로 들 수 있다. 山男가 주요인물로서, 순박하고 반드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존재로 그려져 있다. 그런 山男의 반드시 은혜를 갚는 의리 있는 존재로서 순박한 행동으로 볼 때 賢治가 추구한 人間像을 엿볼 수 있다.

『どんぐりと山猫』²³⁾에서는 서로 자신이 더 괜찮은 도토리라고 우기고 싸우는 도토리들에게 一郎는 이중에서 가장 바보이고 엉망진창이고, 전혀 되지 못한 것 같은 이가 가장 훌륭하다고 결론을 내준다. 또, 『セロ引きのゴーシュ』²⁴⁾의 작품에서는 작은 악단의 첼로리스트인 ゴーシュ는 연주를 하기에

22) 생전 미발표된 작품으로 쓰여진 시기는 1924년경으로 추정된다.

산신의 축제가 있는 밤, 亮二는 곡예장소의 출입구에서 황금색의 눈을 가진 남자와 부딪힌다. 그 남자가 돈이 없는데 음식을 먹게 되어 죄를 추궁하는 장면을 보게 된 亮二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동전을 건넨다. 그 돈으로 지불하게 된 남자는 나중에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바람을 일으키며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山男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亮二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갑자기 쿵하는 소리에 밖을 나가서 보니 빨간색과 밤이 놓여져 있었다. 亮二는 山男가 불쌍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해 무언가 더 좋은 것을 해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23) 初出은 1924년 12월1일 『注文の多い料理店』에 실린 것이며, 草稿의 집필은 1921년 9월 19일 이라고 한다.

山猫로부터 엽서를 받은 一郎는 계곡과 산을 넘어 찾아간다. 거기에 도착하니 도토리들이 서로 자신이 더 괜찮은 도토리라고 싸우고 있었다. 도토리들의 재판을 의뢰받은 一郎는 가장 바보스럽지만 그것이 가장 훌륭한 도토리라고 말하게 되고 그로서 도토리들의 싸움이 멈추게 된다. 그 대가로 山猫에게 황금 도토리를 받게 된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도토리들의 색이 변하고 만다. 그 후 山猫로부터 편지도 연락도 없었다.

는 소질이 없어 모든 이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에는 멋진 연주를 해 내고야 마는 그런 행동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デクノボー>가 보여 진다. 이런 ゴーシュ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변모되는 <デクノボー>」²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모두는 理想郷을 추구하는 모습을 「雨ニモマケズ」의 <デクノボー>와 연결시키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이렇듯 추구하고자 했던 賢治의 理想郷의 추구, 그리고 그 理想郷을 위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理想的 人間像인 <デクノボー>적인 心象이 표현되고 있다.

앞서 거론했듯이, 本稿에서는 『虔十公園林』과 『グスコブドリの伝記』를 중심으로 賢治의 동화에 나타난 理想郷의 추구를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理想的인 人間像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각 작품에서는 주인공에 따라서 <デクノボー>像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虔十公園林』과 『グスコブドリの伝記』에서 각각의 주인공들은 理想郷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보여 진다. 그러나 理想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과 목적은 주인공에 따라 조금씩 다른 <デクノボー>가 보여 지는데 그 차이점을 「雨ニモマケズ」에서 보이는 <デクノボ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4) 생전 미발표 작품으로 쓰여 진 시기는 1931~33년경으로 추정됨.

ゴーシュ는 금성음악단 오케스트라의 첼로 연주가이다. 그러나 그의 연주는 서툴러서 지휘자에게 늘 지적을 받곤 한다. 초조하고 신경질적인 ゴーシュ는 어느 날 그의 집에 고양이와 뼈꾸기, 아기 너구리, 들쥐가 차례로 찾아와 음악을 가르쳐줄 것을 요청한다. 처음엔 거칠고 통명스럽게 대했던 ゴーシュ도 차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과 마음을 터놓게 되고 마침내 그들과 하나가 됨을 깨닫게 된다. 연주회 당일, ゴーシュ의 연주는 그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부시게 향상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25) 최세은 「宮沢賢治의 童話에 관한 研究—「セロ弾きのゴーシュ」를 中心으로—」(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2) 50쪽

2. 『虔十公園林』

2-1. 作品의 成立과 背景

『虔十公園林』은 켄지 생전에 미발표된 작품으로 1924년 후반 쓰여진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데크노보>에 관해 대표적인 작품인데 보통 『気のいい火山弾』과 함께 <데크노보>에 관한 작품이라고 연구해져 왔다.

遊座昭吾는 켄지가 署名을 할 때 <Kenju Miyazawa>라고 쓸 정도로 주인공인 虔十은 바로 켄지가 추구하고자 한 理想的인 人間像이라고 한다.²⁶⁾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주인공인 虔十은 항상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는다. 하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에서 기쁨을 흠뻑 누리며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삼나무 700그루를 사달라고 말하고, 부모님과 형의 도움으로 뒤뜰에 심게 된다. 하지만 그 곳은 삼나무가 자라기엔 너무나 열악한 장소였지만 虔十은 그 일을 강행하게 된다. 그로 인해 더욱 더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몇 년이 흐른 후 나무는 크게 자라 매일 아이들이 와서 이 숲에서 놀게 된다. 시간은 흘러 장티푸스에 걸린 虔十은 죽게 되고 마을의 모습도 크게 변하게 된다. 하지만 虔十의 삼나무 숲은 그대로이다. 예전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크게 감동하고, 虔十의 삼나무 숲을 <虔十公園林>이라고 명명하며 비석을 세우게 되었으며, 虔十에게 크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池川敬可는 虔十의 삶은 켄지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

26) 遊座昭吾 「『虔十公園林』-宮沢賢治とジャン・ジオノ-」(『国文学 解釈と鑑賞』第71卷9号, 至文堂, 2006.9) 99쪽 참조

이 이야기 하고 있다.²⁷⁾

度十を援助する家族や周囲の大人像には、智慧遅れの子供を大切にした、
日本の農村共同体の慈悲の目差しが、背景として存在するように思われる。

켄지가 농촌계몽운동을 추진 할 때 열악한 환경의 농촌을 돕고자 여러 가지 모색방안을 생각하였다.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농민을 度十로 비유하고 있으며, 그런 농촌사회를 바라본 켄지 자신을 가족과 주변사람들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품의 배경으로서 존재한다고 위의 인용문은 보고 있다.

켄지는 주인공 度十를 통해서 <デクノボー>적인 人間像을 제시하면서 度十의 삶을 그려냈다. 度十가 사 달라고 하는 삼나무를 선뜻 사 주신 부모님과 삼나무를 심고 도와주는 형에게서 보여 지는 家族愛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와테현의 열악한 환경과 이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켄지 자신의 염원이 담긴 모습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雨ニモマケズ」의 <デクノボ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度十은 항상 따돌림을 당하지만 항상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것은 詩의 한 句節인 「決シテ瞋ラズ/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キル」와 상응한다. 결코 화내지 않으며, 항상 조용히 웃는 이 句節은 작품속의 度十의 모습과 잘 맞아 있다.

中地文는 작품의 発想의 背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²⁸⁾

度十の人物像は「<デクノボー>」像に、ひいては常不輕菩薩像に通ずること

27) 注13의 75쪽

28) 中地文 「度十公園林-発想の背景をめぐって-」 (『国文学 解釈と鑑賞』第61卷11号, 至文堂, 1996.1) 105쪽

から宗教的な物語と読まれる傾向があったが、こうしてみると、実は農村が開発され木々が伐採されて行くという大正末期の岩手の状況に対する批評的な視線を背後に持った物語であったと認められる。

中地文は <デクノボー> 像을 불교적인 이야기로 읽혀진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 이와테현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농촌이 개발됨에 따라 나무가 벌채되어져 나가는 그 당시 이와테현의 모습을 度十의 삼나무 숲을 平二라는 못된 사람이 베어내라고 강요한 것에 빗대어 작품 속에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작품 속에서 켄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켄지가 가진 사상이나 작품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단지 사전적 배경에 대한 켄지의 사상을 피력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雨ニモマケズ」와 연관지어 이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雨ニモマケズ」에서 보이는 소신을 가지고 곳곳이 나아가는 <데크노ボー> 적인 삶을 사는 度十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作品 속에 나타난 人間像

度十은 항상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한 度十의 행동은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면이 있기는 하나 자연에서 느끼고 만끽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작품의 도입부에 度十의 모습과 행동이 잘 나타나 있다.

度十はいつも縄の帯をしめてわらって杜の中や畑の間をゆっくりあるいているのでした。雨の中の青い藪を見てはよろこんで目をパチパチさせ青ぞらをどこまでも翔けて行く鷹を見付けてははねあがって手をたたいてみんなに知らせました。²⁹⁾

度十은 항상 허리에 새끼줄을 매고 혼자서 산속이나 밭을 걸어 다니거나 한다. 그리고 빗속의 푸른 대나무 밭을 보고 기뻐하거나, 하늘을 날아가는 매를 보고는 박수를 치기도 한다. 이러한 度十의 모습 때문에 주변 인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바보로서 취급당하고 있다.

度十의 행동과 모습에 대하여 홍은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³⁰⁾

<새끼줄로 만든 허리띠를 매고>라는 묘사는 주인공 켄지우가 ‘바보’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새끼줄로 허리띠를 삼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숲속과 밭을 누비고 다니면서 자연물을 보고 <혼자 신이 나서 손뼉치고 웃는 모습>은 동료들로 하여금 <얼간이>로 취급하게 하는 충분한 구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비에도 지지 않고」의 <욕심을 내지 않으며, 항상 조용히 웃고 있는 테쿠노보오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부분과도 일치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다.

홍은예는 度十의 행동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새끼줄로 허리띠를 삼을 리 없기 때문이다」라고 度十을 바보, 얼간이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 물론 새끼줄로 만든 허리띠를 매고 다니는 度十의 모습은 물론 어리석은

29) 宮沢賢治『度十公園林』『新修宮沢賢治全集 第十一卷』(筑摩書房, 1984.7) 48쪽
本稿의 『度十公園林』은 위의 책에 의함.

30) 注19의 81쪽

사람이나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연과 동화되어 度十의 진심어린 표현은 일간이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으로 악의가 전혀 없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度十 자신에게 있어서는 대자연과 함께 하고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모습에서 타인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나, 度十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보여 진다.

또한 홍은예는 그러한 度十의 행동을 「雨ニモマケズ」의 「욕심이 없고 항상 조용히 웃고, 모두에게 <デクノボ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부분 즉, 「慾ハナク/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キル/ミンナニ<デクノボー>トヨバレ/ワタシハナリタイ」의 구절과 일치 한다³¹⁾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度十의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雨ニモマケズ」에서 보이는 「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キル/ミンナニ<デクノボー>トヨバレ/クニモサレズ/サウイフモノニ/ワタシハナリタイ」의 대목과 일치한다고 본다. 항상 조용히 웃는 좋은 모습이 타인에게는 바보라고 불리어져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度十의 모습이 보여 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홍은예가 언급한 「욕심을 내지 않으며 항상 조용히 웃고 있는 데 쿠노보오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시의 구절은 다음의 인용문과 상응하고 있다.

ところが次の日度十は納屋で虫喰い大豆を拾ってましたら林の方でそれはそれは大さわぎが聞えました。(中略)

すると愕ろいたことは学校帰りの子供らが五十人も集って一列になって歩調をそろえてその杉の木の間を行進しているのです。全く杉の列はどこを通過しても並木道のよ

31) 注19의 81쪽

うでした。(中略)

度十もよろこんで杉のこっちにかくれながら口を大きくあいてはあはあ笑いました。

(『度十公園林』, 同52-53쪽)

度十의 삼나무 숲은 어느새 아이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기 시작하게 된다. 度十자신도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런 모습을 기뻐하면서 삼나무의 앞뒤로 숨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 진다. 度十자신의 숲에 아이들이 몰려들어 노는 것을 허용하고, 그 모습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度十에게서 욕심이 전혀 없고, 모든 이의 행복은 자신의 행복으로 받아드리며 조용히 웃는 모습이 보여 지는데 욕심 없는 모습이 보여 진다. 「雨ニモマケズ」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慾ハナク/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キル/ミンナニ<デクノボー>トヨバレ/ワタシハナリタイ」의 <데크노보>로 상응하는 句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度十의 천진난만한 행동에 대해 松田司郎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³²⁾

度十の無心な遊戯行為としれの表現が、人間たちには奇異に映る。外觀的肉体的の成長とその行動(幼稚さ)との比較において、子どもたちにある種の戸惑いと変異を感じさせる。年齢にふさわしい<成長>の欠如が子どもたちをして度十を「ばか」扱いさせてしまう。

다시 말해, 松田司郎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으로 인해 연령에 맞지 않는 度十의 모습과 행동들로 인해 바보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논자는 度十 자신에게 있어서는 대자연과 함께 하고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의미로 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

32) 松田司郎 『宮沢賢治の童話論-深層の原風景-』(国土社, 1990.12) 73쪽

모르나, 度十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고 보여 진다.

池川敬可는 本稿와 비슷한 방향으로 度十가 느끼고 생각하는 자연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³³⁾

自然の直中で生の充足を実感しながら、ある時度十は重要なことに思い当たる。それは己に生の充足を与えるものを、自ら造りだそうという思いである。この自然の中での覚醒は、いうまでもなく杉を植木することである。それが度十の生涯を決定づける生き甲斐や成すべき何かとなる。

池川가 언급한대로 자연은 度十에게 있어서 의식을 깨우쳐 준 것이 된다. 자연을 만끽하는 와중에 度十 자신도 스스로 삼나무를 심어서 직접 만끽해 보겠다는 의지를 남게 된다. 그것이 度十의 삶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항상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놀림감이 되지만 度十은 자연과 항상 동화되어 함께한다. 다음 인용문 또한 度十의 행동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なるほど遠くから見ると度十は口の横わきを掻いているか或いは欠呻でもしているかのように見えたが近くではもちろん笑っている息の音も聞えまして唇がピクピク動いているのもわかりましたから子供らはやっぱりそれもばかにして笑いました。

(『度十公園林』, 同48쪽)

위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度十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웃고 있는 반면, 그 모습이 너무나 바보같이 보여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게 된다. 이런 행동들로 인해 度十은 항상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받게 된다. 이런 괴롭힘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웃기만 하는 度十은 모

33) 注13의 76쪽

든 이들이게 소외되었지만, 단지 부모님과 형은 度十을 보통사람들보다 어리석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러한 度十을 오히려 감싸 주고 의사를 존중해 주고 있다.

「お母、おらさ杉苗七百本、買って呉ろ。」

度十のおっさんはきらきらの三本鍬を動かすのをやめてじっと度十の顔を見て云いました。

「杉苗七百ど、どござ植えらい。」

「家のしろの野原さ。」

そのとき度十の兄さんが云いました。「度十、あそこは杉植えでも成長らない処だ。それより少し田でも打って助けろ。」

度十はきまり悪そうにもじもじして下を向いてしまいました。

すると度十のお父さんが向うで汗あせを拭ふきながらからだを延ばして

「買ってやれ、買ってやれ。度十あ今まで何一つだて頼たのんだごとあ無いがったもの。買ってやれ。」と云いましたので度十のお母さんも安心したように笑いました。

(『度十公園林』, 同49-50쪽)

度十은 갑자기 삼나무 묘목을 사달라고 말한다. 그러한 度十의 말에 당황한듯하고 형도 오히려 무시하고 밭을 갈아달라고 말한다. 度十은 겉연쩍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度十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 준 사람은 바로 度十의 아버지이다. 아버지도 度十을 어리석은 아이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무엇을 사달라는 말이 없었던 만큼 욕심이 전혀 없던 度十였기 때문에 사주라고 말한다. 그런 아버지의 말은 후에 「度十公園林」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원이 탄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度十의 존재가치와 가장 가치있는 삶이란 무엇인

지 깨닫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척박한 땅이라고 모두 말리게 되지만 虔十은 가족의 도움으로 삼나무를 뒤뜰에 심게 된다. 이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平二라는 사람이다. 어느 날 平二는 虔十을 찾아왔다.

「やい。虔十、此处さ杉植るなんてやっぱり馬鹿だな。第一おらの畑あ日影にならな。」

虔十は顔を赤くして何か云いたそうにしましたが云えないでもじもじしました。

すると虔十の兄さんが、

「平二さん、お早うがす。」と云って向うに立ちあがりましたので平二はぶつぶつ云いながら又のっそりと向うへ行っていました。

その芝原へ杉を植えることを嘲笑ったものは決して平二だ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あんな処に杉など育つものでもない、底は硬い粘土なんだ、やっぱり馬鹿は馬鹿だとみんなが云って居りました。

(『虔十公園林』, 同50-51쪽)

平二는 虔十에게 척박한 땅에 삼나무를 심게 되는 것을 바보라고 여기고 자신의 땅에 그들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虔十은 그저 듣기만 듣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虔十의 형이 나타나자 平二는 그냥 도망치듯 가버리고 있다. 바보처럼 보여 업신여긴 虔十에게는 강하며, 조롱하듯 놀리게 되지만 강한 자에는 역시 약한 비굴한 平二의 모습이 보여 진다. 虔十을 무시하는 이는 平二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로부터도 마찬가지로 무시와 괴롭힘을 당한다..

다음은 지나가는 농민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장면이다.

「おい、虔十。あの杉あ枝打ちさないのか。」

「枝打ちていうのは何だい。」

「枝打ちつのは下の方の枝山刀で落すのさ。」

「おらも枝打ちするべがな。」(中略)

そして片っぱしからばちばち杉の下枝を払いはじめました。ところがただ九尺の杉
ですから度十は少しからだをまげて杉の木の下にくぐ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中略)

度十は一ぺんにあんまりがらんとなったのでなんだか気持ちが悪くて胸が痛いよう
に思いました。(中略)

「おう、枝集めべ、いい焚ぎものうんと出来だ。林も立派になったな。」

そこで度十もやっと安心して兄さんと一諸に杉の木の下にくぐって落した枝をすっか
り集めました。

(『度十公園林』, 同51쪽)

그 농민은 度十에게 나쁜 속셈으로 가지치기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그
속셈을 알아채지 못하고 度十은 가지를 모조리 치기 시작한다. 그렇게 횡
해진 숲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나쁘고 가슴이 미어질 듯한 度十의 행동에서
삼나무 숲은 그가 가진 전부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땀감이
생겼다는 형의 말에 금방 안심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은 없어지게 된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속임수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분노를 표
출시키지만, 度十의 경우엔 그런 일들을 금세 잊어버리는 <テクノボー>적인
삶이 엿보인다.

그러나 「雨ニモマケズ」의 <テクノボー>와 연관 짓게 되면 「決シテ瞋ラズ
/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キル」라는 부분과 상응하고 있다. 놀림을 당하지만 오
히려 밝은 웃음으로 대하는 것은 악한 사람을 포용하고 있는 너그러운 자
세로 보여 진다.

度十가 삼나무를 심은 곳은 점점 아이들이 몰려와 놀이터로 변하게 되고,

東京길, 로シア길이라는 등 이름이 붙여진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虔十도 덩달아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 매일 매일 아이들이 몰려들게 되지만 비가 오는 날은 오지 않는다. 그러한 날에도 虔十은 단지 자신의 기분에 맞추어 비를 맞으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虔十さん。今日も林の立番だなす。」

蓑を着て通りかかる人が笑って云いました。その杉には鶯色の実がなり立派な緑の枝さきからはすきとおったつめたい雨のしずくがポタリポタリと垂れました。虔十は口を大きくあけてはあはあ息をつきからだからは雨の中に湯気を立てながらいつまでもいつまでもそこに立っているのです。

(『虔十公園林』, 同53쪽)

지나가는 사람들로 부터 오늘도 숲의 파수꾼을 하느냐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虔十은 비속에서 입을 벌리고 김을 피워 올리며 한없이 서 있게 된다. 비속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그러한 자연과 동화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남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자연과 교감하는 한 방법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虔十의 행동들로부터 볼 때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동하며, 자신이 따돌림과 놀림감이 되지만 성내지 않고 오히려 웃음으로 대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虔十의 행동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虔十의 無의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おっかさんに云いつけられると虔十は水を五百杯でも汲みました。一日一杯畑の草もとりました。けれども虔十のおっかさんもおとうさんも仲々そんなことを虔十に云いつけようとはしませんでした。

(『虔十公園林』, 同48쪽)

어머니가 시킨 대로 물을 오백 통을 길러오고, 하루 종일 풀을 뽑는 그런 행동들은 아무 의식 없이 하는 행동들로 보여 진다. 부모님도 그러한 虔十을 항상 의식하고 있으며,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꼭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雨ニモマケズ」의 구절에서도 보여 지듯이 「丈夫ナカラダヲモチ」「西ニツカレタ母アレバ/行ッテソノ稲ノ束ヲ負ヒ」에서도 보여 듯이 튼튼한 몸을 가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오히려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하는 虔十의 모습에 빗대어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된다. <デクノボー>라는 단어가 바보, 멍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정의를 내렸듯이 켄지에게 있어서는 <デクノボー>야 말로 理想的인人間像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詩에서도 정말 바보이기 때문에 바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동이 비록 타인에게는 바보처럼 보일 지더라도 꾸준히 해 내어 나가는 것이야 말로 <デクノボ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삼나무를 심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장면이다.

あんな処に杉など育つものでもない、底は硬い粘土なんだ、やっぱり馬鹿は馬鹿だとみんなが云って居りました。

それは全くその通りでした。杉は五年までは緑いろの心がまっすぐに空の方へ延びて行きましたがもうそれからはだんだん頭が円く変って七年目も八年目もやっぱり丈が九尺ぐらいでした。

(『虔十公園林』, 同50-51쪽)

虔十은 무작정 삼나무 묘목을 사달라고 한다. 그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삼나무가 자라기엔 적절한 땅이 아니다. 하지만 虔十은 그런 것을 알

만큼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삼나무들이 자라기엔 부적절했고, 몇 년이 지나도 키가 아홉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뻥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나 度十가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고 답답한 度十은 의식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平二가 찾아와서 자신의 밭에 그들이 생긴다고 삼나무를 베어내라고 요구한다.

「度十、貴さんどこの杉伐れ。」

「何してな。」

「おらの畑あ日かげにならな。」

度十はだまって下を向きました。平二の畑が日かげになると云ったって杉の影がたかで五寸もはいってはいなかったのです。おまけに杉はとにかく南から来る強い風を防いでいるのです。

「伐れ、伐れ。伐らないが。」

「伐らない。」度十が顔をあげて少し怖そうに云いました。その唇はいまにも泣き出しそうにひきついていました。実にこれが度十の一生の間のたった一つの人に対する逆らいの言だったのです。

ところが平二は人のいい度十などにばかにされたと思ったので急に怒り出して肩を張ったと思うといきなり度十の頬をなぐりつけました。どしりどしりとなぐりつけました。

(『度十公園林』, 同53-54쪽)

이 장면은 앞서 度十가 부모님께 삼나무를 사 달라고 한 것처럼 삼나무를 베어내라고 하는 平二의 말에 बे지 않겠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한다. 이 또한 度十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누가 뭐라 해도 소신껏 곳곳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삼나무 숲은 虔十에게는 가장 소중한 장소였고,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했던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虔十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平二는 虔十을 뺨을 때리기 시작하고, 저항하지 않고 맞기만 한다. 이 대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표현했다고 하나, 마지막에 맞기 시작했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맞기만 맞는 것으로 보아서도 어리석은 행동이 보여 진다. 松田司郎는 「平二에 대한 無抵抗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デクノボー>적인 박애」라고 말하고 있다.³⁴⁾

또한 따돌림을 당하거나 위와 같이 平二에게 맞기까지 하지만 자신의 괴로움을 전혀 알지 못한 둔한 사람이다. 항상 그 순간엔 당황하거나 괴로워는 하지만, 순간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금세 잊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虔十은 켄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詩속에 보이는 <デクノボー>적인 理想的인 人間像에 틀림없다.

앞에서도 거론되었듯이 「雨ニモマケズ」의 한 구절인 「決シテ瞋ラズ/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イル」와 상응한다. 놀림감이 되거나, 비웃음을 당해도 결코 화내지 않으며, 자연에 감사하며 항상 조용히 웃기만 하는 모습에서 너무나도 닮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데크노ボー적인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소외를 당하는 虔十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항상 자연을 만끽하며, 즐기고, 느끼던 虔十은 자신도 자연을 직접 만들어보겠다고 생각하고 삼나무를 심기로 한다. 하지만 삼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환경적인 요건 등, 그런 지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虔十은 스스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은 갖고 있지 않지만, 놀림감이 되거나 화내지 않고 웃기만하는 모습은 <デクノボー>적인 삶과 유사할지는 모르나 이러한 虔十의 모습은 바

34) 注32의 75쪽 재인용

로 켄지가 추구하고자 하던 理想的인 人間像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악의 없는 좋은 모습은 바로 켄지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虔十의 삶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 <デクノボー>의 가치 실현

虔十가 삼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꿋꿋이 해 나가게 된다. 그러한 虔十의 강한 의지는 작품의 결말에 虔十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虔十의 삼나무 숲은 매일같이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놀이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때도 虔十을 바보 같다고 놀리면서도 어린이들 자신도 모르게 그 숲에 매료되고 있지만 그 가치는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虔十은 장티푸스에 걸려 죽고 平二도 이듬해 죽게 되며 몇 십년 세월은 흐르게 된다. 마을도 예전 같지도 않고, 세월에 따라 다 변해 버리지만은 虔十의 삼나무 숲만은 그대로이다.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그 마을 초등학교에서 초청하는데, 그 박사는 바로 虔十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어린이였다. 그때의 虔十을 기억해 내고, 虔十이 일구어 낸 삼나무 숲을 크게 칭찬하며 감격한다. 그리고 <虔十公園林>이라고 명명하고, 비를 세우게 된다.

다음 인용문은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이다.

全く全くこの公園林の杉の黒い立派な緑、さわやかな匂、夏のすずしい陰、月光色の芝生がこれから何千人の人たちに本統のさいわいが何だかを教えるか数

えられませんでした。そして林は度十の居た時の通り雨が降ってはすき徹る冷たい
雪をみじかい草にポタリポタリと落としお日さまが輝いては新らしい奇麗な空気をさわ
やかにはき出すのでした。

(『度十公園林』, 同57쪽)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度十가 추구했던 삶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남이 보기엔 바보 같은 度十였지만, 度十는 자기가 추구하고자 했던 삶을 곳곳이 실현시켜 나아갔다. 삼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모두들 비웃었지만 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리고 度十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있는 삶의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삼나무를 심는 일에 대해 다른 이의 어떠한 말에도 굴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곳곳이 나아가는 강한 의지를 가진 度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雨ニモマケズ」에서 보여 지는 <デクノボー>적인 人間像을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었듯이 어리석음과 바보스러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논하기 보다는 「雨ニモマケズ」에서 나타나있는 소신이 있는 <デクノボー>적인 삶의 모습을 度十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グスコブドリの伝記』의 작품에서 ブドリの 삶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理想郷을 추구해 나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또 작품이 쓰여진 시기적으로 <デクノボー>像의 표현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

3-1. 作品의 成立과 背景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는 생전에 발표된 작품으로 1932년 3월 잡지 『児童文学』 제2호³⁵⁾에 발표된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쓰여진 시기는 1931년 경으로 추정된다. 농촌을 구하기 위한 작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져 있고 켄지의 정신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생각되어진다. 14년간 4번의 퇴고를 거쳐 완성한 작품이며 일반적인 켄지 동화에 나타나는 자연과 인간과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 그리고 모든 지구상의 동, 생물들이 서로 융합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주인공인 브리는 10살이 되던 해 냉해와 기근으로 인해 부모님과 동생을 잃고 고아가 된다. 혼자가 된 브리는 누에를 치는 남자에게 강제로 고용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 또 혼자가 된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만난 붉은 수염의 남자에게 다시 고용되어 밭일을 하게 된다. 그러는 생활을 하면서 독학을 하여 벼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새로운 농사법으로 풍작을 이루게 된다. 다시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서 붉은 수염의 남자와는 이별을 하게 되고 더욱더 농사법을 공부하기 위해 쿠퍼박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화산 사무국에서 일하게 된다. 거기서 펜넬 노(老)기사를 만나게 되고 화산을 관측하는 일을 배워나간다. 브리가 27세 되던 해 다시 냉해가 찾아온다. 백성들과 이하토브의 마을을 지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결심하며 화산을 폭발시켜 대기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 올리게 된다. 브리의 죽음으로

35) 原子朗 『宮沢賢治語彙辞典』(東京書籍, 1999,6)에 의하면 1931년 7월20일 문교서원(文教書院)에서 창간, 편집자로서는 佐藤一英이고 季刊의 예정으로 시작되었다. 509쪽 참조

인해 농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의 작품이다.

켄지는 이와테현이 유토피아, 드림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하토브로서 스스로 만들어 낸 이상적인 땅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이와테현은 냉해와 가뭄으로 인해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척박한 땅이 되어 가는데 그것이 후에 농촌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작품 속의 중심인물인 ブドリ는 농민들을 위하여 온 몸을 불사르며 농민을 구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이와테현의 농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켄지 자신으로 보여진다. ブ드리와 賢治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주로 自傳적인 작품으로 결부시켜 연구되어져 왔다. 天沢退二郎은 켄지의 精神的自叙伝이라고 보고 있을 만큼 켄지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³⁶⁾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벼농사 법이나 화산폭발에 대해 과학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져 왔거나 犠牲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本稿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주인공 ブ드리와 주변 인물들의 행동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켄지의 理想的인 人間像인 <デクノボー>가 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雨ニモマケズ」와 연결시켜 분석해 나아가고자 한다.

3-2. 作品 속에 나타난 人間像

이 작품에서는 ブドリ가 중심인물이며 부모님, 여동생 ネリ, 붉은 수염의 남자, クーボー박사, 펜넬 노(老)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브드리와 犠牲, 브드리의 남매를 위한 부모님의 犠牲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犠牲이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 있다. 단지 어떠한 이유로 犠牲을 주제로 하고 있

36) 注9의 35쪽 참조

는가를 밝히는 것만이 아닌, 더 나아가 「雨ニモマケズ」에서 보여 지는 <テクノボー>와 연관 지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브리의 부모님의 경우 작품 속에서 어떠한 人間像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냉해로 인한 기근이 계속되고 남은 식량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부모님은 브리와 네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ある日おとうさんは、じっと頭をかかえて、いつまでもいつまでも考えていましたが、にわかに起きあがって、「おれは森へ行って遊んでくるぞ。」と言いな
ら、よろよろ家を出て行きましたが、まっくらになっても帰って来ませんでした。

次の日の晩方になって、森がもう黒く見えるころ、おかあさんはにわかに立
て、炉に櫓をたくさんくべて家じゅうすっかり明るくしました。それから、わたしはお
うさんをさがしに行くから、お前たちはうちにいてあの戸棚にある粉を二人ですこ
ずつつたべなさいと言って、やっぱりよろよろ家を出て行きました。二人が泣いてあと
から追って行きますと、おかあさんはふり向いて、「なんたらしいことをきかないこ
もらだ。」としかるように言いました。そしてまるで足早に、つまずきながら森へは
いってしまいました。³⁷⁾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다. 냉해는 점점 심해지고 남아있는 식량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잠시 숲에서 놀다 오겠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나가게 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집을 나가는 장면이다. 아버지를 찾으러 갈 테니 찬장에 있는 가루를 조금씩 먹으라고 말한 뒤에 역시 돌아

37) 宮沢賢治『グスコブりの伝記』『新修宮沢賢治全集 第十三巻』(筑摩書房, 1984.6)
266쪽 本稿의 『グスコブりの伝記』는 위의 책에 의함.

오지 않는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부모님의 犠牲이 보여 진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부모님 자신들의 죽음이라는 犠牲을 통해 몸소 실천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다시 말해 자신들까지 있으면 식량도 줄어들게 되니 차라리 없어지는 게 자식에게는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버렸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 中谷俊雄는 ブドリの 양친은 어린 ブドリ 남매를 버린 나쁜 부모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소년기에 부모를 잃었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³⁸⁾

하지만, 논자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본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어쩔 수 없는 결심이 보여주고 있으며, 그 犠牲을 통한 부모님의 사랑이 엿보여 지기 때문이다. 작품 초반에 잠깐 등장하는 부모님의 犠牲에 관한 장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여 진다. 후에 브드리가 성장하여 가족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自己犠牲을 결심하는 발단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브드리의 人間像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냉해로 인한 기근으로 부모님은 먹을 것을 모아 브드리의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가게 된다.

부모님이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는 브드리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된다.

おかあさんの言った粉のことを思い出して戸棚をあけて見ますと、なかには、袋

38) 中谷俊雄 「グスコブドリの伝記-自己犠牲について-」 (『賢治研究39』 宮沢賢治研究会, 1985.11) 68쪽 참조

に入れたそば粉やこならの実がまだたくさんはっていました。ブドリはネりをゆり起こして二人でその粉をなめ、おとうさんたちがいたときのように炉に火をたきました。

(『グスコブドリの伝記』, 同265쪽)

부모님이 모아둔 메밀가루와 졸참 열매 나무를 먹기 위해 동생을 깨우고 부모님이 있었을 때처럼 화로에 불을 지피는 장면을 볼 때 10살의 브드리이지만, 어른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을 챙기는 책임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브드리의 남매는 둘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동생 네리는 어떤 남자에게 납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집이 있던 숲 일대는 산누에의 천잠사공장이 되고 거기서 강제로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된다. 그러나 산누에 때문에 생겨난 나방으로 인해서 공장 사람들은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브드리는 혼자 남게 된다.

ブドリはぼんやりあとへ残りました。うちの中はまるできたなくてあらしのあとのようでしたし、森は荒れはてて山火事にでもあったようでした。ブドリが次の日、家のなかやまわりを片付けはじめましたら、てぐす飼いの男がいつもすわっていた所から古いボール紙の箱を見つけました。中には十冊ばかりの本がぎっしりはってありました。開いて見ると、てぐすの絵や機械の図がたくさんある、まるで読めない本もありましたし、いろいろな木や草の図と名前の書いてあるものもありました。ブドリはいっしょうけんめい、その本のまねをして字を書いたり、図をうつしたりしてその冬を暮らしました。

(『グスコブドリの伝記』, 同273쪽)

혼자 남겨진 브드리는 숲과 공장을 지키며 겨울을 보내게 된다. 책을 읽거나 글씨를 따라 쓰는 일을 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 후에 더 큰

세상에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천잠사공장으로 끌려가 일을 하도록 강요받게 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묵묵히 일을 하며 곳곳이 이겨나가는 브드리 모습 발견할 수 있다.

그 천잠사 공장은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두들 다 떠나 버리고 브드리도 역시 숲을 나오게 된다. 거기서 붉은 수염의 남자를 만나게 되고 沼畑에서 그의 일을 도우면서 지내게 된다. 그러나 오리자 병에 걸리게 되고, 석유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받게 되는데 붉은 수염의 남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브드리、ことは沼ばたけは去年よりは三分の一減ったからな、仕事はよほどらくだ。そのかわりおまえは、おれの死んだ息子の読んだ本をこれから一生けん命勉強して、いままでおれを山師だといってわらったやつらを、あっと言わせるような立派なオリザを作るくふうをしてくれ。」

そして、いろいろな本を一山ブドリに渡しました。ブドリは仕事のひまに片っぱしからそれを読みました。ことにその中の、クーボーという人の物の考え方を教えた本はおもしろかったので何べんも読みました。またその人が、イーハトーヴの市で一か月の学校をやっているのを知って、たいへん行って習いたいと思ったりしました。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 同282쪽)

브드리 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게 된다. 붉은 수염의 남자는 브드리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를 만들어 준 인물이다. 그리고 쿠퍼라는 사람이 쓴 책은 더욱더 강하게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적극적인 자세를 심어 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여름 나뭇재와 소금을 사용해 오리자병을 막는 큰 공을 세우게 된다. 붉은 수염의 남자가 4년에 걸친 연구가 실패되었지만 한 번에 공을 세우게 된다.

우선 여기까지의 브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브리像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도 동생을 돌보는 어른스러움을 볼 수 있고, 천잠사 공장에서 비록 희생을 강요당하지만 곳곳이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 진다. 또, 독학을 하면서 스스로 깨우쳐 나아가는 삶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6년간 일한 沼ばたけ를 떠나 전부터 동경한 クーボー박사를 만나러 가게 된다.

ブりはいろいろな思いで胸がいっぱいでした。早くイーハトーヴの市に着いて、あの親切な本を書いたクーボーという人に会い、できるなら、働きながら勉強して、みんながあんなにつらい思いをしないで沼ばたけを作れるよう、また火山の灰だのひでりだの寒さだのを除くくふうをしたいと思うと、汽車さえまどろこくってまらないくらいでした。

(『グスコーブ리의伝記』, 同284쪽)

어릴 때 냉해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브리는 할 수 있는 한 일하면서 공부해서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브리가 단지 책으로 읽힌 지식만이 아닌 책을 쓴 쿠보박사를 직접 만나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며 모두가 걱정하지 않는 沼ばたけ를 만들고자 생각한다. 여기서 단지 생각으로서만 그친 것이 아닌 실천으로서 옮기고자 하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곳곳이 해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보여 진다.

쿠보박사를 만난 브리는 그가 전해준 명함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거기에는 이하토브 화산국 사무소라는 곳인데 펜넬 노(老)기사를 만나게 된다.

다음 인용문은 펜넬 노(老)기사를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장면이다.

ブドリはその日からベンネン老技師について、すべての器械の扱い方や観測のしかたを習い、夜も昼も一心に働いたり勉強したりしました。そして二年ばかりたちますと、ブドリはほかの人たちといっしょにあちこちの火山へ器械を据え付けに出されたり、据え付けてある器械の悪くなったのを修繕にやられたりも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で、もうブドリにはイーハトーヴの三百幾つの火山と、その働き具合は掌の中にあるようにわかって来ました。

(『グスコブドリの伝記』, 同291쪽)

ブドリ는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계를 익히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모든 일을 다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된다. 쿠퍼박사 그리고 펜넬노(老) 기사를 만나게 되면서 브ドリ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러한 브드리의 삶은 詩「雨ニモマケズ」의 구절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慾ハナク/アラユルコトヲ/ジブンヲカンジョウニ入レズニ/ヨクミキキシワカリ/ソシテワスレズ」의 句節과 연관 지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욕심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일하며 배워 나가고 모든 일을 자신에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해서 행하며, 펜넬노(老) 기사와 함께 일하며 잘 몰랐던 기계를 익히고 깨우치는 점에서 상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의 장면은 브드리가 27세가 되던 해 또 다시 냉해가 찾아오게 된다.

ところが六月もはじめてになって、まだ黄いろなオリザの苗や、芽を出さない木を見ますと、ブドリはもういても立ってもいられませんでした。このままで過ぎるなら、森にも野原にも、ちょうどあの年のブドリの家族のようになる人がたくさんできるのです。ブドリはまるで物も食べずに幾晩も幾晩も考えました。

(『グスコブドリの伝記』, 同306쪽)

ブドリ에게 다시 냉해가 찾아오게 되며 벼와 짝이 트지 않는 나무를 보고 초초해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다시 냉해의 피해가 생긴다면 자신처럼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장면은 「雨ニモマケズ」의 「サムサノナツハオロオロアルキ」의 구절과 상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초초해 하고 있다. 「雨ニモマケズ」의 詩속에서도 보여 지듯이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닌 진심으로 内面 속에서 우러러 나와 행하는 모습이야 말로 理想的인 삶이며 참된 행복으로 보여 진다.

다음의 인용문은 최후의 결말 부분으로 ブドリ가 クーボー박사를 만나 냉해를 막기 위해서는 화산을 폭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先生、気層のなかに炭酸ガスがふえて来れば暖かくなるのですか」

「それはなるだろう。地球ができてからいままでの気温は、たいてい空気中の炭酸ガスの量できまっていたと言われるくらいだからね。(中略)

「先生、あれを今すぐ噴かせられないでしょうか。」

「それはできるだろう。けれども、その仕事に行ったもののうち、最後の一人はどうしても逃げられないのでね。」

「先生、私にそれをやらしてください。どうか先生からペンネン先生へお許しの出るようおことばをください。」(中略)

「私のようなものは、これからたくさんできます。私よりもっともったんでもできる人が、私よりもっと立派にもっと美しく、仕事をしたり笑ったりして行くのですから。」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 同306쪽)

최후의 결말 부분으로 ブドリ가 クーボー박사를 만나 냉해를 막기 위해서는

화산을 폭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때 브ドリ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犠牲을 결심하게 되는 장면이다. 자신이 부모님을 잃게 된 것도 냉해의 피해에 의해서 고아가 되었는데, 화산을 폭발시켜 탄산가스로 기온을 높이려고 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犠牲을 결심하게 된다. 여기서 殺身成仁의 자세로도 볼 수 있다.³⁹⁾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아름답게 일하고 웃으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브드리 발언은 자신이 犠牲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실현시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펜넬노(老)기사를 찾아가서도 브드리 자신은 결심한 것에 대해 털어놓게 되는데, 펜넬노(老)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それはいい。けれども僕がやろう。僕はことしもう六十三なのだ。ここで死ぬなら全く本望というものだ。」

(『グスコブドリの伝記』, 同306쪽)

펜넬노(老)기사는 자신이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게 된다. 나이도 많고 모든 사람들 돕기 위한 犠牲을 통해 죽는다면 보람을 느끼고 바라는 바라고 이야기 한다. 브드리 희생결심과 펜넬노(老)기사의 발언으로 볼 때 자신의 목숨보다 모든 이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는 <テクノボー>적인 心象을 볼 수 있다. 「雨ニモ マケズ」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무엇의 대가를 위해 행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 스스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타인이 보기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어리석고 바

39) 전명은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문학 사상 연구-『구스코부도리의 전기』(『グスコブドリの伝記』)의 주제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2) 62-63쪽 참조

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값진 일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詩 속의 <テクノボー>는 정말 바보고 어리석기 때문에 <テクノボー>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며 역설적으로 반대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부모님의 犠牲은 ブドリ로 하여금 自己犠牲을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 직접적으로 작품에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한 냉해의 피해가 있음으로 인해 예전의 일을 회상하게 되고 부모님이 자신과 동생을 위해 犠牲을 강행했던 것처럼 자신도 모든 이들을 위해 犠牲을 결심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여기서, 처음 부분의 부모님의 犠牲과 결말부분에 있어서의 ブ드리의 犠牲에 있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켄지가 생각하는 理想을 추구하기 위해 두 부분의 犠牲을 통한 <テクノボー>像가 작품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리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은 브리와 넬리를 위해서 犠牲으로 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으나, 그 犠牲으로 인해 理想的인 現實을 實現시키고자 했고, 그로 인한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만의 기쁨의 충족으로 이어 졌다고 본다.

그러면 브리가 왜 犠牲을 결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그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붉은 수염의 남자에게 벼농사를 배우게 되고, 오리자의 병을 없애는 연구를 성공시키면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또 クーボー박사와 潮汐발전소를 만들어서 모든 농민들에게 풍작을 이루게 도와주는데 이 또한 모든 이의 기쁨과 행복으로 인해 삶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된다.

브리는 이와 같이 이하토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고 선사하기 위해서 화산을 폭발시켜 냉해의 피해를 막고자 했다. 칼보나드 섬을 폭발시키는 사람 중 한명은 빠져 나올 수 없는 최후의 한 사람이 되

어 죽음을 맞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犠牲을 결심하게 된다.

3-3. <デクノボー>의 가치 실현

지금까지 부모님의 犠牲과 ブドリの 犠牲을 선택한 강한 의지, 그리고 ブドリの 주변 인물들의 삶의 자세와 그에 따른 人間像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ブドリの 희생으로 인한 결말부분이다.

そしてその次の日、イーハトーヴの人たちは、青ぞらが緑いろに濁り、日や月が銅いろになったのを見ました。

けれどもそれから三四日たちますと、気候はぐんぐん暖かくなってきて、その秋はほぼ普通の作柄になりました。そしてちょうど、このお話のはじまりのようになるはずの、たくさんのブドリのおとうさんやおかあさんは、たくさんのブドリやネリといっしょに、その冬を暖かいと、明るい薪で楽しく暮らすことができたのでした。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 307쪽)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여 지듯이 브드리의 희생이 가져온 결과는 무척 컸다. 화산폭발로 인해 기후가 따뜻해지고 보통의 작황이 된다. 마지막의 많은 브드리의 부모님, 많은 브드리와 네리들과 함께 그 겨울을 잘 날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켄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현실을 작품 속에 나타낸 것은 아닌 가라고 보여 진다.

여기서 모든 이를 위한 행복추구로서 결국 모든 이들을 구하고자 했던 犠牲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보여 지는 데크노보어 像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양희선은 브드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논자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⁴⁰⁾

ブドリの死は、幸福で永遠なる生を得るための、自分の真の幸福を、求める
ための、一つの手だてとして選択なのであった。

양희선은 위와 같이 브드리의 죽음을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또, 「작품 속에 깊게 반영된 세계의 전체가 행복하게 되지 않으면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켄지의 말은 브드리의 죽음이 犠牲死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논자는 브드리의 죽음, 즉 犠牲을 통해서 모든 이의 행복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생각되어 진다. 결국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브드리는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서 犠牲을 택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이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도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행복추구라고만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犠牲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人間像을 살펴보았다. 그에 대하여 「雨ニモマケズ」와도 연관 지어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 詩 속에 나타내고 있는 <デクノボー>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브드리의 삶을 통해서 건강하고 욕심 없이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타인에게는 바보이며 어리석게 보여 지더라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순수함으로 남을 돕고 犠牲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며 참된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 한다

지금까지 『虔十公園林』과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虔十公園林』가 1924년에 쓰여 졌으며, 『グスコーブドリの

40) 양희선 「宮沢賢治の『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研究-ブドリの死をめぐる-」(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2) 42쪽

伝記』는 약 8년 후인 1932년의 작품이다. 즉, 「雨ニモマケズ」(1931년)가 쓰여진 시기가 비슷한 작품이다.

『虔十公園林』의 虔十은 남들에게 놀림을 받을지언정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 그것은 바로 삼나무를 심는 일이었는데, 그 나무가 커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또한, 『グスコブドリの伝記』ブドリの 삶도 虔十의 삶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이다. 냉해와 기근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고, 동생도 납치되어 버려 혼자 남게 된다. 여러 곳을 진전하면서,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했고, 일을 하면서도 공부도 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벼농사법도 그러했고, 화산국에 들어가서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기계를 익히는 듯 뭐든 적극적 해 나가는 청년으로 자라게 된다. 냉해가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자신의 일처럼 함께 괴로워하며 그들을 돕고자 자신 스스로 화산과 함께 폭발하면서 犠牲하게 된다. 그 犠牲은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결심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인해 자신도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작품의 결말로 보았을 때, 『虔十公園林』의 虔十의 삼나무 숲은 크게 번창하여 큰 숲을 만들게 되고 그의 바보스러운 행동과 모습에 비웃었던 사람들마저도 그 숲의 가치에 크게 놀라게 되고 감동을 받는다. 또 『グスコブドリの伝記』의 ブドリの 犠牲으로 인해 더 이상의 ブド리의 부모님, 그리고 브드리와 네리처럼 되지 않도록 理想的인 現實이 實現시켰다.

두 작품의 주인공들의 人間像을 「雨ニモマケズ」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켄지가 생긴 꿈꿔온 理想的인 人間像인 <デクノボ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이 성립된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デクノボー>를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출시키는가에 따라서도 시기적으로 차이점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虔十公園林』의 虔十의 경우, 욕심이 없고 소박하며 좋은 삶을 살아가

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어리석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의 <デクノボー>로 볼 수 있었다. 또 주위 사람들의 놀림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꿋꿋이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 진다.

또한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의 ブドリ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결심한 죽음이라는 犠牲을 통해서 理想을 실현시키고자 했으며 그러한 모습이 타인에게는 비록 어리석게 보여 질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던 켄지의 소망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雨ニモマケズ」에서 보여 지는 <デクノボー>로 불려져도 소신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을 꿋꿋이 해 나아가는 강한 의지가 들어 있는 삶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デクノボー>는 晩年の 켄지가 생전에 꿈 꾀은 理想的인 人間像을 「雨ニモマケズ」의 작품에서 표출시켰고, 시기적으로 앞선 『虔十公園林』보다는 「雨ニモマケズ」가 쓰여 지고 다음해에 쓰여 진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의 작품에서 <デクノボー>를 보다 더 확고하게 표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デクノボー>의 작품이라고 논해져 왔던 세 작품을 각각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4. 타 작품에서 보이는 人間像

지금까지 『虔十公園林』과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 속의 주인공을 통해서 켄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デクノボー>적인 人間像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세 작품들도 「雨ニモマケズ」와 결부시켜 <デクノボー>와 관련된 작품으로 논해져 왔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比較・分析 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気のいい火山弾』이다.

『気のいい火山弾』은 1921년경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생전 미발표된 작품이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빨리 쓰여진 작품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虔十公園林』과 함께 <デクノボー>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주인공인 베고石은 온순한 성격 탓에 주위의 돌들에게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ベゴ石は、稜がなくて、丁度卵の両はじを、少しひらくのばしたやうな形でした。そして、ななめに二本の石の帯のやうなものが、からだを巻いてありました。非常に、たちがよくて、一べんも怒ったことがないのです。それですから、深い霧がこめて、空も山も向ふの野原もなんにも見えず退くつな日は、稜のある石どもは、みんな、ベゴ石をからかって遊びました。⁴¹⁾

베고石은 돌들 중에서도 모서리가 없으며 주위의 돌들과 다른 모양으로 인해 항상 놀림감을 받게 된다. 지루한 날이 되면 베고石을 놀리며 놀게 된다. 하지만 성격이 매우 좋아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돌이다. 보통의 돌과 같았으면 저항을 했겠지만, 성격이 매우 좋고 온순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다음 인용문 또한 놀림을 당하는 장면이다.

41) 宮沢賢治 『気のいい火山弾』 『新修宮沢賢治全集 第八巻』 (筑摩書房, 1984.1) 138쪽
本稿의 『気のいい火山弾』은 위의 책에 의함.

「ベゴさん。今日は。おなかの痛いのは、なほったかい。」

「ありがたう。僕は、おなか痛くなかったよ。」とベゴ石は、霧の中でしづかに云ひました。

「アハハハハハ。アハハハハハハ。」稜のある石は、みんな一度に笑ひた。

(中略)

「ベゴさん。今日は。昨日の夕方、霧の中で、野馬がお前さんに小便をかけたらう。気の毒だったね。」

「ありがたう。おかげで、そんな目には、あはなかったよ。」

「アハハハハハ。アハハハハハハ。」みんな大笑ひです。

「ベゴさん。今日は。今度新しい法律が出てね、まるいものや、まるいやうなもの、みんな卵のやうに、パチンと割ってしまふさうだよ。お前さんも早く逃げたらどうだい。」

(『気のいい火山弾』, 同138-139쪽)

베고石는 남들의 조롱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 조롱받는 일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기분을 내색하지 않고 괴로움을 참아내고 있다.

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이의 조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대답은 「ありがとう」라는 단어로 또박또박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력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괴롭힘이 싫지만, 「ありがとう」라는 역설적으로 표현한 듯 하고 모두의 조롱에 이미 체념을 하고 지내는 듯 보인다.

놀림과 조롱 속에 살던 베고石가 동경제국대학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그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장면이다.

その時、向ふから、眼がねをかけた、せいの高い立派な四人の人たちが、い

ろいろなピカピカする器械をもって、野原をよこぎって来ました。その中の一人が、ふとペゴ石を見て云ひました。

「あ、あった、あった。すてきだ。実にいゝ標本だね。火山弾の典型だ。こんなととのったのは、はじめて見たぜ。あの帯の、きちんとしてることね。もうこれ丈けでも今度の旅行は沢山だよ。」

「うん。実によくととのってるね。こんな立派な火山弾は、大英博物館にだってないぜ。」

みんなは器械を草の上に置いて、ペゴ石をまはってさすったりなでたりしました。

どこの標本でも、この帯の完全なのはないよ。どうだい。空でぐるぐるやった時の工合が、実によくわかるぢゃないか。すてき、すてき。今日すぐ持って行かう。」

(『気のいい火山弾』, 同145쪽)

항상 생긴 모양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자신의 몸에 난 이끼로부터도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받던 베고石은 동경제국대학의 훌륭한 연구자로부터 그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주위의 부러움을 사게 되고, 동경제국대학으로 옮겨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냈던 주위의 동료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みなさん。ながながお世話でした。苔さん。さよなら。さっきの歌を、あとで一ぺんでも、うたって下さい。私の行くところは、こゝのやうに明るい楽しい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私共は、みんな、自分でできること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さよなら。みなさん。」

(『気のいい火山弾』, 同417쪽)

주위의 부러움을 사게 되지만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은 여기처럼 밝고 즐거운 곳이 아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한 베고石의 발언으로 볼 때 강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는 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실천하고 나아가려는 <デクノボー>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놀림감이었던 자신이 성공은 했지만, 애초에 관심이 없고 흘러가는 데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베고石의 태도가 보여 지는데, 자신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출세는 했지만 아무런 욕심이 없고, 출세를 계기로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고石을 볼 수 있었다.

또 조롱을 당할 때도 오히려 밝게 웃으며,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 지는데 이러한 모습이 타인에게 비록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내면의 고통으로 끌어안은 채 오히려 <デクノボ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雨ニモマケズ」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살펴 볼 때 베고石은 <デクノボー>의 사상에 딱 상응하는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다.

베고石의 행동에서는 놀림과 조롱에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밝은 웃음으로 맞는 태도는 「雨ニモマケズ」에서 「慾ハナク/決シテ臆ラズ/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キル」의 구절과 상응하고 있다. 출세에 관심이 없는 욕심이 없는 마음, 주위의 놀림과 괴롭힘에도 결코 화내지 않고 조용히 웃는 「雨ニモマケズ」의 모습이 보여 지기 때문에 <デクノボー>의 작품으로 논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雨ニモマケズ」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곳곳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삶이 <デクノボー>라 정의하였다. 베고石이 동경제국대학으로 가게 될 때도 스스로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논자가 정의한 <デクノボー>의 의미로서 이 작품을 <デクノボー>의 작품으로 논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작품은 『猫の事務所』이다.

『猫の事務所』는 1926년 3월 「月曜」 2월호에 실린 작품이다.

주인공인 かま猫는 다른 고양이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

다. 이 작품은 보통 大正 중기의 현실비판 또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있는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かま猫는 고양이 사무소의 서열 4번째로, かま猫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항상 밤에 부뚜막에 들어가서 자는 버릇이 있어 몸이 그을음으로 더럽고, 너구리처럼 보이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지어지게 된다. 항상 그러한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たとへば、ある日となりの虎猫が、ひるのべんたうを、机の上に出してたべはじめようとしたときに、急にあくびに襲はれました。(中略)

これは猫仲間では、目上の人にも無礼なことでも何でもなく、人ならばまづ鬚でもひねるぐらゐのところですから、それはかまひませんけれども、いけないことは、足をふんばつたために、テーブルが少し坂になつて、べんたうばこがするするつと滑つて、たうとうがたつと事務長の前の床に落ちてしまつたのです。(中略)

その時四番書記のかま猫も、ちやうどべんたうの蓋を開いたところでしたが、それを見てすばやく立つて、弁当を拾つて虎猫に渡さうとしました。ところが虎猫は急にひどく怒り出して、折角かま猫の出した弁当も受け取らず、手をうしろに廻して、自暴にからだを振りながらどまりました。

「何だい。君は僕にこの弁当を喰べろといふのかい。机から床の上へ落ちた弁当を君は僕に喰へといふのかい。」

「いいえ、あなたが拾はうとなさるもんですから、拾つてあげただけでございます。」⁴²⁾

어느 날 かま猫는 하품을 하다가 도시락이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사무장인 고양이 앞으로 떨어진다. 급히 책상위에서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했지만

42) 宮沢賢治『猫の事務所』『新修宮沢賢治全集 第十三巻』(筑摩書房, 1984.6) 230-231쪽
本稿의 『猫の事務所』는 위의 책에 의함.

도시락은 잘 잡히지 않는다. 그것을 보던 얼룩고양이는 오히려 화를 내고 결투를 신청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かま猫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보이지도 못하는 어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이 잘 못한 것이 아닌, 단지 주워주려고 한 것뿐인데도 웃음거리가 되고 더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항상 화도 내지 못하는 고양이이다. 뭐가 잘 되고 잘못된 행동인지를 かま猫는 확실히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남 앞에 자신이 생각한 것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気のいい火山弾』의 베고石的 행동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이 있더라도 당당히 행동하지 못하는 점은 자신의 의지와 소신껏 해 나아가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항상 かま猫를 두둔하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바로 사무장 고양이인 黒猫이다. 그 사무장 고양이는 검은색의 고양이로서 かま猫와 비슷한 색의 고양이이다.

다음은 도시락 사건으로 인해 싸움으로 변질 뻔 했지만 黒猫로 인해 다행히 그만두게 된다.

「いや、三毛君。それは君のまちがひだよ。かま猫君は好意でちよつと立つただけだ、君にさはりも何もしない。しかしまあ、こんな小さなことは、なんでもありやしないぢやないか。さあ、えゝとサントンタンの転居届けと。えゝ。」

事務長はさつさと仕事にかかりました。そこで三毛猫も、仕方なく、仕事にかりはじめましたがやつぱりたびたびこはい目をしてかま猫を見てゐました。

(『猫の事務所』, 同233쪽)

黒猫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장면이다. 黒猫는 유달리 かま猫를 두둔한다. 그 이유에 관해서, 김지연은 「사무장의 고양이들 다른 서기 고양이들에게 갖고 있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검은 고양이인 부뚜막 고양이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것」⁴³⁾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편을 두기 위해서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黒猫의 행동은 かま猫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았듯이, 黒猫가 특별히 かま猫를 두둔하게 되면, 다른 고양이들로부터 더 미움을 사게 될뿐더러,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도와준다는 생각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또 김지연은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다 해결 될 거라는 그런 かま猫의 속마음이 보여 지는 것에 대하여 어찌면 그는 스스로 자학하고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⁴⁴⁾라고 보고 있다.

켄지는 작품 속에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デクノボー>에 かま猫의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人間像을 표현했다고 보여 진다.

어느 날 黒猫가 아끼고 감싸던 かま猫를 미워하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 かま猫는 심한 감기에 걸려 출근을 하지 못한다. 그때 다른 고양이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간질을 시키게 된다. 처음에는 사무장 고양이도 믿지 않지만, 사무장과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말에 꽤심하게 생각하고 만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의 책상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세 고양이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듯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43) 김지연 「미야자와 켄지의 동화에 나타난 이상현실의 염원」 (상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2) 21쪽

44) 注43의 21쪽 참조

점심시간이 되고 かま猫는 가져온 도시락도 먹지 않고 무릎에 손을 향하고 있으면서 울기 시작한다.

そしておひるになりました。かま猫は、持つて来た弁当も喰わず、じつと膝に手を置いてうつむいて居りました。

たうとうひるすぎの一時から、かま猫はしくしく泣きはじめました。そして晩方まで三時間ほど泣いたりやめたりまた泣きだしたりしたのです。

(『猫の事務所』, 同237쪽)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서기의 자리를 박탈당했는지 그 이유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울기만 하는 나약함을 보이고 있다. 왜 자신이 오지 않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히 따지고 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속으로만 느끼고 생각하며 단지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것은 다른 고양이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보다는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책망하고 있다. 여기서 홍은에는 「괴로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⁴⁵⁾라는 부분과 접목시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詩의 한 句節인 「クニモサレズ」라는 부분을 <걱정 끼치지 않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이라고 잘못 이해하면서 かま猫의 행동을 「雨ニモマケズ」와 접목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かま猫의 행동을 보면 영특함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신의 주장을 펼칠만한 용기도 없고, 그로 인해 더욱더 따돌림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자리인 4번서기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왜 박탈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도 당당히 묻지 못한 채 눈물을

45) 注19의 82쪽 참조

흘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 진다. 이러한 かま猫의 행동을 「雨ニモマケズ」와 상응시켜 본다면 「慾ハナク/決シテ瞞ラズ/ホメラレモセズ/クニモサレズ」 애초 사무장 같은 높은 지위는 바라고 있지 않는 욕심 없는 삶, 자신의 자리에서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닌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며, 동료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서 内面 속으로는 괴로움을 느끼는 かま猫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료들의 따돌림과 마지막에 쫓겨 나갈 때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모습으로 볼 때 의지가 약한 かま猫를 볼 수 있다. 따라서 <テクノボー>적인 삶은 찾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집단 따돌림이 없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켄지의 염원이 담긴 작품으로 생각되어 진다.

마지막 작품은 『よだかの星』이다.

『よだかの星』는 1921년경 쓰여진 작품으로 추정되며, 이 작품 역시 생전 미발표된 작품이며 <花鳥童話集>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よだ카는 앞의 두 작품들과 비슷하게 걸모습으로 인한 따돌림과 놀림을 받고 있다.

우선, よだ카는 왜 그렇게 놀림과 미움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よだかは、実にみにくい鳥です。

顔は、ところどころ、味噌をつけたようにまだらで、くちばしは、ひらたくて、耳までさけています。

足は、まるでよぼよぼで、一間とも歩けません。ほかの鳥は、もう、よだかの顔を見ただけでも、いや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工合でした。⁴⁶⁾

작품의 처음 시작부분부터 よだ카의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46) 宮沢賢治『よだかの星』 『新修宮沢賢治全集 第八巻』(筑摩書房, 1984.1) 90쪽
本稿의 『よだかの星』는 위의 책에 의함.

그 얼굴은 보기 흉하며, 왜 놀림과 미움, 그리고 따돌림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먼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단지 생긴 모습만으로 평가되어 미움을 받는 것으로 보아 앞의 『気のいい火山弾』 작품의 주인공인 베고石과 『猫の事務所』의 かま猫와도 비슷한 운명을 가진 것으로 보여 진다. 남들과 다른 생김새의 베고石, 항상 숯을 묻히고 다니는 かま猫, 그리고 그가 가진 마음씨나 성격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지 겉모습만으로 평가되어지는 よだかの 모습과 닮고 있다. よだかは 왜 자신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단지 남과 다른 조금 흉한 얼굴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게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며 그로 인해 자신 스스로도 괴로움을 느끼게 된 よだかは 현실도피를 위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이 작품을 최세은은 「よだかは 너무 못생기고 불품없어서 놀림만 당하던 <デクノボー>적 모습의 よだかが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弱者인 <デクノボー>의 成功記로도 보인다」⁴⁷⁾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よだかの 모습을 <デクノボー>적인 모습이 보여 지며, 하늘의 별이 되는 모습을 <デクノボー>의 成功記로 보고 있다. よだかは 괴로움에 대해 자신 스스로 저항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현실을 곳곳이 이기고 나아가지 못하여 최후에 죽음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를 하였다.

하지만 논자는 소신을 가지고 곳곳이 나아가는 강한 의지의 <デクノボー>와는 관계가 없는 작품으로 생각한다. 굳이 소신을 가진 강한 의지의 よだかの 모습을 찾는다면 다음의 인용문을 예로 들 수 있겠다.

「鷹さん。それはあんまり無理です。私の名前は私が勝手につけ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47) 注25의 45쪽 인용

せん。神さまから下さったのです。」

「いいや。おれの名なら、神さまから貰ったのだと云ってもよからうが、お前のは、
云わば、おれと夜と、両方から借りてあるんだ。さあ返せ。」

「鷹さん。それは無理です。」(中略)

「そんなことはとても出来ません。」

(『よだかの星』, 同93쪽)

어느 날, 매가 よだかを 찾아오게 되고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름을 바꾸라는 매의 말에 よだかは 안된다, 무리다라고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雨ニモマケズ」에서 나타내고 있는 <テクノボー>와 연관 지어 살펴 볼 수 있으나 <テクノボー>와 관련된 작품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よだかの 죽음은 弱肉強食의 괴로움과 그러한 자신이 가진 業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ああ、かぶとむしや、たくさんの羽虫が、毎晩僕に殺される。そしてそのただ一つの僕がこんどは鷹に殺される。それがこんなにつらいのだ。ああ、つらい、つらい。僕はもう虫をたべないで餓えて死のう。いやその前にもう鷹が僕を殺すだろう。いや、その前に、僕は遠くの遠くの空の向うに行ってしまう。))

(『よだかの星』, 同94쪽)

よだかは 입을 벌리고 하늘을 나르기 시작 했을 때 작은 날벌레와 투구벌레들이 수없이 목구멍으로 날아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벌레들이 よだかの 입으로 들어왔을 때 파닥거리며 괴로워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삼키게 된다.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벌레를 먹게 되고 자신도 언젠가 매로 인해 죽음을 당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결심하게 된다.

이러한 よだかの 행동과 생각으로 볼 때 弱肉強食의 괴로움과 그로 인해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최후에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별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을 소신을 가지고 곳곳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テクノロジー>의 작품으로 보기 보다는 よだかを 통해서 모든 생물의 가치는 평등하며 켄지 자신의 실체를 よだかの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진다.



Ⅲ. 結論

지금까지 賢治의 <デクノボー>에 관해 『度十公園林』와 『グスコブドリの伝記』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度十의 삶과 ブドリの 삶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理想郷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度十은 <デクノボー>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묵묵히 해 나간다. 그것은 바로 삼나무를 심는 일이었는데, 그 나무가 커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ブドリの 삶도 度十의 삶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이다. 냉해와 기근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고, 동생도 납치되어 버려 혼자 남게 된다. 여러 곳을 진전하면서,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했고, 일을 하면서도 공부도 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벼농사법도 그러했고, 화산국에 들어가서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기계를 익히는 등 뭐든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청년으로 자라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하토브 지역에 냉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피해를 더 이상 없애고자 자신이 스스로 화산과 함께 폭발하면서 犠牲하게 된다. 그 犠牲은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결심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인해 자신도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작품의 결말 부분을 보았을 때, 度十의 삼나무 숲은 크게 번창하여 큰 숲을 만들게 되고, 그의 바보스러운 행동과 모습에 비웃었던 사람들마저도 그 숲의 가치에 크게 놀라게 되고 감동을 받는다.

켄지의 작품 속에서 보여 지는 理想的인 人間像인 <デクノボー>의 의미는 「雨ニモマケズ」에서 자세히 보여 졌다. 건강하고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며 남이 볼 땐 비록 바보 멍청이라고 불리게 되더라도 남을 위해 도우고 살며, 타인의 행복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고 걱정하는 삶 거기에서 우리러 나오는 犠牲이야 말로 켄지가 바라고 소망했던 행복이라고 보여 진다. 또 그러한 삶을 소신을 가지고 곳곳이 나아가는 모습을 『度十公園林』에서는 度十의 욕심 없고 善한 人間像이,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에서는 브드리 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한 犠牲정신으로 작품 속에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켄지는 여기서 度十를 통해서 삶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한 度十의 모습은 그가 추구한 理想的인 人間像인 <デクノボー>로서 표현된다. 「雨ニモマケズ」의 한 구절인 「慾ハナク/決シテ臆ラズ/イツモシヅカニワラッテキル」의 구절과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나무가 잘 자라지 않음에 따른 그 크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해도 결코 화내지 않고, 조용히 웃는 그런 <デクノボ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삼나무를 심는다는 주위사람들의 놀림에도, 平二가 삼나무를 베어내라는 말에도, 베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한 度十의 모습은 소신이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브드리의 삶 역시 적극적인 삶을 살았으나, 度十보다는 브드리의 삶이 더 뚜렷하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犠牲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 타인에게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그러한 브드리의 삶을 통해 <デクノボー>라는 단어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에서는 「雨ニモ マケズ」의 「サムサノナツハオロオロアルキ」처럼 추운 여름에 서성거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일을 걱정하며, 「ジブンヲカンジョウニ入レズニ」처럼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삶이 엿보여 진다. 브드리의

삶은 스스로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지는 않는다. ブドリ는 무언가의 대가를 원한 것이 아닌, 모든 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헌신적인 희생의 실천이다.

그리고 여태껏 <デクノボー>에 관한 작품으로 논해져 온 『気のいい火山弾』, 『猫の事務所』, 『よだかの星』 이 세 작품을 각각의 선행연구를 재검토,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 세 작품은 단지 <デクノボー>라는 단어 그 자체로 어리석음을 논하기에는 무리함이 없어 보이나, 앞에서 논자가 정의한 「雨ニモマケズ」에서 보이는 소신을 가진 강한 의지가 있는 <デクノボー>라는 의미의 작품으로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이 모든 작품들을 종합 해 볼 때 작품이 쓰여 진 시기적인 문제도 지적할 수 있겠다. 「雨ニモマケズ」(1931년)가 쓰여 진 시기를 중심으로 전후의 작품 속의 <デクノボー>의 표현도 다르다고 하겠다.

「雨ニモマケズ」를 쓰기 이전의 작품은 『気のいい火山弾』(1921년), 『よだかの星』(1921년), 『度十公園林』(1924년), 『猫の事務所』(1926년)의 작품이다. <デクノボー>라는 것을 작품 속의 주인공을 통해서 표현할 때, 詩의 한 句節 한 句節의 의미를 다 포함한 전체적인 <デクノボー>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진다. 그에 맞는 詩의 한 句節에서 보이는 의미와 상응 시키면서 <デクノボー>를 논해온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雨ニモマケズ」가 쓰여 지고 일 년 후인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1932년)는 詩 전체의 句節이 모두 상응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주제로 보여 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한 犠牲 정신을 가진 소신이 있는 강한 의지와 정확히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가 켄지의 自伝적인 작품으로서 작가론적인 관점의 연구나, 단지 犠牲 정신을 논하는 선행연구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詩 「雨ニモマケズ」와

관련된 <デクノボー>에 관한 작품으로 얼마든지 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켄지는 생전에 <デクノボー>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작품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여 진다. 晩年の 켄지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デクノボー>를 통해서 「雨ニモマケズ」라는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마지막에 「ミンナニデクノボートヨバレ/ホメラレモセズ/クニモサレズ/サウイフモノニ/ワタシハナリタイ」라는 강한 의지와 함께 켄지의 확고한 理想的인 삶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비록 작품 속에 주인공의 <デクノボー>의 표현 방법은 각기 달랐으나, 켄지가 소망하고자 했던 理想的인 人間像을 <デクノボー>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デクノボー>를 통해서 켄지가 꿈꾸어왔던 드림랜드로서 이하토브를 실현시키기 위한 염원과 소망이 깃들여져 있다고 보여 진다.

参考文献

- 宮沢賢治『新修宮沢賢治全集 第二巻』(筑摩書房, 1983.9)
- _____『新修宮沢賢治全集 第七巻』(筑摩書房, 1983.12)
- _____『新修宮沢賢治全集 第十一巻』(筑摩書房, 1984.7)
- _____『新修宮沢賢治全集 第十三巻』(筑摩書房, 1984.6)
- 佐藤泰正「賢治素描「雨ニモマケズ」再論」(『別冊国文学 No.6 宮沢賢治
必携』學燈社, 1980.5)
- 原子郎『鑑賞日本近代文学13 宮沢賢治』(角川書店, 1981.6)
- 恩田逸夫『宮沢賢治3 童話研究・他』(東京書籍株式会社, 1981.10)
- 伊藤眞一郎・萬田 務 編, 土佐 亨「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 私見」『作品論 宮
沢賢治』(雙文出版社, 1984.7)
- 中谷俊雄「グスコーブドリの伝記-自己犠牲について-」(『賢治研究39』宮沢賢治
研究会, 1985.11)
- 原子郎『宮沢賢治語彙辞典』(東京書籍, 1989.10)
- 分銅惇作「雨ニモマケズ」(『國文學 解析と教材の研究』第34巻14号, 學燈社,
1989.12)
- 松田司郎『宮沢賢治の童話論-深層の原風景-』(国土社, 1990.12)
- 中村文昭『童話の宮沢賢治-太母, 子供ハ人間ノ父-』(洋々社, 1992.3)
- 池上雄三『宮沢賢治 心象スケッチを読む』(雄山閣, 1992.7)
- 大藤幹夫・万田務編『宮沢賢治童話への招待-作品と材料-』(桜楓社, 1995.10)
- 中地文「度十公園林-発想の背景をめぐって-」(『国文学 解釈と鑑賞』第61巻11
号, 至文堂, 1996.1)
- 天沢退二郎・萩原昌好『宮沢賢治 イハトーブローマン』(くもん出版, 1996.7)

- 谷本誠剛 『宮沢賢治とファンタジー童話』 (北星堂, 1997.8)
- 佐野美津男 『宮沢賢治の童話を読む』 (辺境社, 1998.4)
- 池川敬可 「虔十公園林」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第48巻3号, 学燈社, 2003.2.)
- 秋枝美保 「気のいい火山弾」 (『國文學 解析と教材の研究』 第48巻3号, 學燈社, 2003.2)
- 大塚常樹 「グスコブドリの伝記」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第48巻3号, 學燈社, 2003.2)
- 홍은예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동화 고찰-동화를 통해서 본 데쿠노보 오(デクノボー: 바보)사상을 중심으로-」 (『일본근대문학산책』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일본근대문학회, 1996.12)
- 양희선 「宮沢賢治の『グスコブドリの伝記』 研究-ブドリの死をめぐって-」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2)
- 최세은 「宮沢賢治의 童話에 관한 研究-「セロ弾きゴーシュ」를 中心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2)
- 전명은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문학사상연구-『구스코부도리의 전기』 (『グスコブドリの伝記』)의 주제를 통해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2)
- 김지연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에 나타난 이상현실에의 염원」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2)